

2nd European User Conference

참가 결과

(European User Conference for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LFS) and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2011. 4.

통계개발원

I 개 요

1. 출장개요

○ 참가회의 :

- 주 관 : Eurostat 협력하에 독일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소
(German Microdata Lab, GESIS)에서 주관
- 회의기간 : '11. 3. 31(목)~4.1(금) / 2일간
- 개 최 지 : 독일 만하임

* 2009년 제1회 개최이후 올해 제2회 회의로서 EU 고용통계(EU-LFS), 소득 및 생활여건 관련통계(EU-SILC)의 국가별 분석, 비교 또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결과 공유하는 회의임

○ 출장기간 : '11. 3. 30(수)~4.3(일) / 5일간

○ 출 장 자 : 연구기획실 박현정 사무관

2. 출장목적

-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사회비교 분석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럽 고용통계' 와 '유럽 소득 및 생활조건 통계' 에 관한 연구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선진 연구동향 및 통계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내 주요통계인 고용통계와 관련하여 노동이동, 근로 빈곤, 성별 격차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해 연구방법론과 사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1. 회의 내역

- 노동시장, 소득, 가구부문 및 두 통계* 작성방법론과 관련된 6개 부문의 의제에 세션별로 참가

* EU-LFS,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 일반적인 방법론(general methodology) 및 국내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 모색

- 참가 세션

- 노동시장 :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간의 변화와 이동에 관한 유럽 국가간 비교, 고령자 노동시장 이탈 패턴 등
- 소득 : 소득수준, 불평등 등 측정에서 횡단면 조사와 종단면 자료간 불일치 등
- 방법론 등 : EU-SILC 종단면 자료의 Calibration 등

2. 발표 내용

【 제1일: 3.31(목) 】

< 개회사 > Eurostat

◆ (Dr.) Inna Steinbuka

"Social and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 유럽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경제, 사회, 지리 등 여러 학문 분야와 각국 통계청, 연구소 등 각계기관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조사인 EU-LFS(유럽노동력조사)와 EU-SILC(유럽 소득 및 생활조건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유럽국가간 또는 유럽내 NUTS* 분류기준에 따른 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사회경제현상에 대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 * 유럽은 지역통계를 독자적인 지역구분 체계인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분류에 의해 작성
- 아울러, Eurostat에서는 관련되는 두 통계의 작성 방법론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EU의 정책적인 수요에 맞게 주도권을 가지고 개선시켜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사회과학 관련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또한 중요

< 개회세션 1 > 연구 목적의 EU Microdata의 공개전망

◆ Jean-Louis Mercy & Aleksandra Bujinowka (Eurostat)

Perspective in release of EU micro data for research purpose : the new Commission Regulation on access to EU confidential data for scientific purpose

- Eurostat와 회원국은 과학적 목적의 EU 비밀자료(Confidential data)에 접근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2011년 새로운 규정관련 법적 초안 마련, 2012년에 채택 예정
- 유럽지역 과학적인 과정의 분석을 위해 비밀자료에 접근하는 연구자를 확대하고자하는 Eurostat 전략의 일부임
 -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s System)의 관리수준에 관한 논

의와 연구 커뮤니티로부터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

○ 비밀자료의 공개에 대한 위험관리 접근방법의 소개

- 새로운 방식은 주로 원격접근 방식, 비밀자료 접근(access)의 분산화를 권장, 2011년 4월 이후는 CD-ROM을 통한 공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기로 결정
- 3개 비밀보호 영향 수준 구분(Low-Medium-High)하여 덜 민감하고 익명화된 파일이나 키(key)를 조약하게 변화시킨 정보는 '낮음'으로, 키(key)에 상세한 형식이 포함된 경우는 더 민감하므로 '중간', 전체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경우는 '높음'으로 분류

< 개회세션 2 > 유럽 공식적인 마이크로 자료를 위한 사회과학 기반

◆ (Prof.) Christof Wolf & Heike Wirth (Germany Microdata Lab)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for official Microdata in Europe /
Service for European Microdata

○ 독일 마이크로 데이터 연구소(Germany Microdata Lab)는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의 내부 조직

* 독일사회과학연구소(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는 만하임(조사설계 및 방법론, 모니터링 등)에 본부를 두고 쾰른(사회과학 부문 자료보관 및 기록관리), 본(사회과학 지식기술, 정보분야), 베를린(동유럽 서비스)에 기능을 달리하여 3곳의 사무소를 운영

○ GML에서는 1987년에 처음으로 공식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방법론 등의 중요한 연구를 수행, 초기에 독일의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유럽의 자료를 생성해 나가고 있음

- 공식통계에 관한 접근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 공식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지원
 - 문서화(메타정보의 연결)/지식전달(워크숍 개최)/네트워크 구축(연구자와 자료제공자간 연결)/맞춤형 자료제공(Source code 문서화, 표준화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툴)
- EU통계의 품질개선을 위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세션 A > 소득 I : 유럽 보수 변화와 불평등

◆ Ronald Bachmann, Peggy David & Sandra Schaffner
(RWI, Germany)

Pay transitions and inequality in Europe

- 유럽에서 소득불평등에 있어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임금 분포에서는 상당한 상승이 있었지만,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는 변동이 없음. 국가간 임금 이동패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은 중요
- EU-SILC조사는 자료의 종단적 구조로 이러한 분석에 적합,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개인에 관한 관측이 가능하여 시간에 따른 임금 종단면 측정이 가능
또한 EU 모든 국가(노르웨이 포함)에 대해 포괄하며, 국가별 특성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음
- 이행행렬에 기초하여 이동성을 계산하고 국가간 세부 인구그룹간 비교를 실시
(분석결과) 상태의존(state dependence) 정도가 국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스칸디나비아와 대륙형 유럽국에서는 가장 높고, 지중해국에서는 가장 낮았음

- 개별 취업자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상향 이동성은 대부분 직업이 변화한 취업자에서 나타남
 - 성별, 가구형태 뿐만 아니라 기술그룹(skill group)별로도 차이를 보임
- 소득 이동성과 소득 불평등간에 관련성은 몇 가지 불평등 척도를 통해 다뤄짐
(분석결과) 중부 및 동유럽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았고, 스칸디나비아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았음
- 비록 횡단면 분석으로 소득불평등이 꽤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금이동성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줄인 결과로 보임
 - 소득이동의 균등화 효과는 국가와 세부인구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 임금이동성의 균등화 효과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지만, 대륙형 국가에서는 훨씬 낮게 나타남
 - 또한 일자리를 바꾼 청년취업자에서 임금 불평등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짐

< 세션 B > 노동시장 I : 유럽 노동시장 흐름

◆ José Maria Casado, Cristina Fernández & Juan Francisco Jimeno (Bank of Spain, Spain)

Labour market flows in the European Union

- EU 10개국의 EU-LFS 자료(2002-2009)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 파악(취업, 실업, 비경활)하고, 활동상태를 6개 범주화, 18개 인구통계그룹으로 구분(성, 교육, 연령), 취업에서 실업, 실업에서 취업, 비경으로 이동 등을 분석
- 각국의 EU-LFS 관련 조사 방법론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 향후

분기별 flow 검토를 위하여 중단면 자료가 필요

- i) 스페인 : 취업에서 실업 유출이 많음, 동시에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유입이 더 많음
- ii) 영국과 덴마크 : 취업으로의 유입이 높으나, 유출은 낮음
- iii) 독일 : 실업률 변화는 없으나, 실업자의 유입이 중년 남성 및 여성에서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출이 감소

< 세션 B > 노동시장 I : 실업기간과 구직활동의 집중정도 검토

◆ Ronald Bachmann, Baumgarten Daniel & Mattias Vorell
(RWI, Germany)

Unemployment Duration and Job Search Intensity in Europe – an Overview

- 유럽노동시장에서 장기 실업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남음. 전체적으로 더욱 지속적인 실업으로 이끌게 됨. EU-LFS에서 조사된 국가별 실업지속기간과 구직활동의 강렬함에 관한 분석을 실시
 - 실업기간은 0~5개월, 6~11개월, 12개월 이상 3가지로 구분하고, 구직활동 방법은 7가지로 구분, 강렬한 구직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직의 강렬함'을 proxy 변수로 로짓 분석(logit regression) 실시
 - 가구 특성(4세이하 아동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있는 가구, 비경제활동인구인 배우자 유무 등을 구분)에 관심, 성별 및 국가간* 차이도 고려함
- * 유럽을 4개 그룹으로 구분
 - ① Continental Europe(대륙형: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오스트리아)
 - ② UK & Ireland(영국, 아일랜드)
 - ③ Mediterranean Europe(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 ④ Central and Eastern Europe(중동유럽)

- 형편이 좋지 않은(unfavorable) 가구(가구내 고령층이 증가할수록)는 실업기간 증가와 연관이 있음. 구직행동, 즉 탐색의 강렬함과 구체적인 탐색방법의 사용에 대해 고찰해 봄
 - 요인분석(FA)을 실시하여 3개의 요인으로 묶음, 각 그룹별 프로빗(probit) 추정치를 비교, 형편이 좋은 개인들이 더 강렬하게 탐색함을 발견
 - 실업기간에 관해 고학력, (상황이 나은)젊은 층일수록 실업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 특히, 공공 고용사무소에 접촉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가구특성과 실업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음

< 세션 B > 노동시장Ⅱ : 고용률 전망 변화

◆ Ronald Bachmann, Baumgarten Daniel & Mattias Vorell
(RWI, Germany)

Extensive vs. Intensive margin: Changing perspective on the employment rate

- 노동시장 검토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고용률임. 그럼에도 노동수급의 광범위한 구분으로만 측정됨. 즉, 철저한 구분(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덜 검토되고 있음
 -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full-time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면, 광범위한 구분(extensive margin)에 근거한 통계와도 완전히 동일할 것임. 즉, 모든 취업자가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가중 고용률과 표준 고용률은 동일

- 그러나, EU 노동시장은 part-time 비중과 기간 계약근로자가 지난 15년간 상당히 증가되었음 intensive margin에 의해 가중된 고용률 계산방법을 제안

○ “work intensity”를 고려하여 가중 고용률을 계산

- 일의 집중도(취업시간과 취업월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

$$\hat{E} = \frac{\sum w_i I_i}{P}$$

$$w_i = \frac{\text{주당 취업시간}}{\text{EU 중앙값 (40시간)}} \times \frac{\text{연간 취업월수}}{12\text{개월}}$$

○ EU-SILC 26개국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 철저한 구분(intensive margin)의 분해와 일자리 분포에서 국가간 불평등의 비교
- 남유럽국(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intensive margin” 고용률은 UK, 프랑스, 독일과 매우 유사하며 어떤 경우는 더 높았는데, 이는 남유럽의 경우 part-time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임
- 고용과 빈곤의 관련성은 표준화된 광범위한 framework에 의한 구분보다는 더욱 유연한 framework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음
- (커멘트) 추후 part time을 full-time으로 상응하게 변환하여 계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 제2일: 4.1(금) 】

< 세션 E > 노동시장 II : 유럽 임시직 고용-디딤돌?

◆ Julia Bredtmann & Sandra Schaffner(University of Bochum & RWI Essen, Germany)

Temporary employment in Europe - stepping stone?

- 임시근로 취업자의 특성파악, EU 국가간 차이를 파악하고, 임시근로와 영구근로의 이동경로 기능을 조사
 - 일자리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도 고려함, 근로자가 임시근로 일자리를 선택에 있어 혜택 등 파악
 - 임시근로 이유 등 파악을 위해 EU-LFS의 11년간 자료 활용
소득자료 등 파악 위해 EU-SILC 4년간 패널자료 활용
-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는 비전형근로 형태로 임시근로가 확대되어 왔음
 - 고용주 입장에서는 강력한 고용보호와 높은 해고비용을 포함하는 영구계약을 대신하여 저렴한 해고비용으로 더 유연하게 근로자(노동력)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시근로가 개인의 능력과 동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구로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음
 - 기간제 근로가 근로자 일자리보호는 약하지만, 실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취업경험획득과 인적자본취득을 제공함
- (선행연구)실업자 증가에 기인하여 유럽국에서 대부분 임시 근로자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많았음
 - 임시근로 진입자, 자발적인 임시근로인지, 임시근로의 혜택은 무엇

인지 등에 관한 논의

- 최근 Ingham(2010)의 폴란드 사례 결과, 임시근로의 증가로 실업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최근 임시근로가 정규근로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함을 보임
- (분석결과) 임시와 영구근로간에 임시근로의 양과 이행확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음.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로 젊은 층에서는 임시근로가 가장 결정적인 특성임. 반면 임시근로 규모에서 성별차이는 약간 존재, 산업간에는 큰 차이를 보임
- 임시근로의 자발성여부는 임시근로 사유의 대부분이 '영구근로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 비자발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세션 E > 노동시장Ⅱ : 유럽노동시장의 초과고용도표화

◆ Vanita Mattal (University of Zurich, Switzerland)

Mapping overemployment in the European Labour Market

- EU-2008 결과를 통해 유럽에서 초과노동의 정도와 분포를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초과고용은 취업시간이 잘못매치(mismatch)된 경우(더 적게 일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또는 계약된 시간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함
 - 많은 국가에서 고용상황과 무관하게 원하는 취업시간을 조사하여 이러한 현상의 진단 가능성을 제공
 - 기존에는 파트타임으로 불완전 고용이 소득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중요하게 다뤄져 이에 대비한 분석이 이뤄졌으나, 반대편 측면에서는 과잉고용의 측면이 있음

- 고용의 질의 한 테마인 '일과 생활의 조화'와도 관련되며, part-time 논쟁과도 관련됨
 - 기혼여성의 경우 좋은 조건의 일자리보다는 좋은 시간대의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 할 수 있음
 - 시간의 미스매치는 자유 시간 및 시간가치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함

< 세션 F > 방법론 : EU-SILC 종단자료의 보정

◆ Thomas Glaser & Matthias Till(Statistics Austria)
 Calibration of EU-SILC longitudinal data
 : A suitable technique for the enhancement of coherence of social inclusion indicators with respect to constant and variable masses?

- EU-SILC의 주요 목적은 사회포괄지표를 추정하는 것임. 위험 빈곤율은 EU-SILC 자료를 이용하여 중심지표로 추정되고, 또 다른 지표는 패널(balanced panel)을 근거로 위험빈곤율의 지속성을 추정함
- EU-SILC는 대부분 연동표본을 활용, 종단패널과 횡단조사의 표본이 많이 겹치지만 데이터를 지표로 추정하면 몇 개국에서는 상당히 큰 불일치가 존재
 - EU-SILC 조사에 근거한 추정량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EU-SILC 종단자료와 2008년 UDB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수행
 - 불일치 사유는 4가지로 구분하면, 표본유입(inflow), 샘플링오류(sampling error), 반복조사에 의한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 표본마모(attrition bias)로 분류
 - 사회포괄지표 관측에서 발생한 차이의 많은 경우는 표준오차 또는

패널과 횡단조사의 구조적인 차이로는 설명이 될 수 없음

- 결론으로 횡단조사의 주변분포를 이용하여 종단자료를 보정(Calibration)함으로써 약점을 제거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제시, 추정된 사회포괄지표에 대한 의미를 논의함
- (커멘트)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이런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등록자료(register-based data)를 활용하여 2년 전에 보정방법으로 해결하였음
- (질의응답) 보정이후에도 불일치 존재할 경우의 처리방법
⇒ 무응답이 높은 경우는 표준오차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systematic error가 random error 보다 클 경우는 bias가 포함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됨

< 폐회세션 > EU-LFS와 EU-SILC의 미래

◆ The future of EU-LFS와 EU-SILC

- EU-LFS와 EU-SILC의 자료 활용상 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 등 토론
 -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컨퍼런스 이후에도 자료이용자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필요 등
- GESIS에서 자료수집 방법과 조사 자료의 통합을 위한 더 나은 기법에 관한 연구 수행 중임
 - 자료간 불일치 시에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요구됨
⇒ 유럽통계시스템의 변수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치(normal value)로 수정하고 있음
 - 각국의 조사관련 상황에 대해 이용자를 위하여 개념체계(framework) 또는 주요 변수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이에 대해 국가간 대규모 합의(consensus)가 필요

- 주요 변수 추가에 관한 논의도 필요

Ⅲ 시사점

- ‘일 가정 양립’ 과 관련된 분석으로서 희망 취업시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mismatch)에 관한 분석이 국내에서도 시도될 필요가 있음
 - 불완전고용(Time related underemployment)이 소득부족 문제와 연관되어 그동안 단시간 취업자에게만 추가취업 희망여부를 조사 해옴
 - 고용의 질 측면에서 장시간 초과고용(overemployment)에 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취업시간에 관한 추가 조사 필요
- 노동시장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이태리에서 제시한 ‘가중 고용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산 검토
 - 고용률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일의 집중도(work intensity)*’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산출
 - * **【정규근로시간(예: 주당 40시간) 대비 실제취업시간】 × 【12개월 중 취업기간(월)】**을 곱함
- Eurostat에서는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과 EU내 주요 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간 협의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통계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럽의 **ESS** 시스템 및 **GESIS** (Eurostat 마이크로자료 위탁관리)의 자료 관리 및 보급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

【부록】 세부 회의주제

□ 회의 일정

	세션 A : 소득 I	세션 B : 노동시장 I	세션 C : 가구(가족)
3월 31일			
09:30	등록		
10:30~12:00	<p>< 개회 세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와 정보사회통계- Eurostat ·연구 목적의 마이크로 자료의 공개전망 : 과학적 목적의 EU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에 관한 위원회의 새로운 규정 ·유럽 공식 마이크로 자료에 관한 사회과학 기반/유럽마이크로자료 서비스 		
13:30~1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에서 부채과잉 ·유럽지역 가구부문 부채 ·사회-경제적 이동성 (EU-SILC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에서 노동시장 흐름(flow) ·질보다는 양? ·실업기간과 구직활동 집중정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복지상황에서 저임금일자리와 빈곤 ·유럽국가간 1인가구 빈곤의 다차원 분석 ·EU-SILC에 근거한 노년세대의 상황
15:45~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에서의 보수 변화와 불평등 ·소득불평등과 참가 ·커플 소득불평등 및 성별임금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퇴직의 결정요인 ·고령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 패턴 ·광범위한 vs. 철저한 경계(고용률 전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임금격차, 유럽의 '3D업종'과 '유리천정' ·유럽 이민 : 동유럽 ·병가사용 성별 격차 : EU-LFS 2005사용한 횡단면 분석
4월 1일	세션 D : 소득 II	세션 E : 노동시장 II	세션 F : 방법론
09:0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빈곤의 패턴에 관한 영향 ·유럽에서의母的 임금 ·횡단면자료와 종단면 자료의 일치 ·빈곤의 지역 수준분석 EU-SILC 이용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성과 배제 패턴 ·유럽 임시고용-디딤돌? ·유럽노동시장에서 초과고용도표화(mapping overemployment) ·경제적 이유 단시간 취업자 결정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2020 빈곤지표의 표본설계와 표준오차 ·EU-SILC 연간소득과 현행가구 구성간 불일치, 소득률에 잠재적 영향 ·EU-SILC 종단자료의 조정
11:30~13:00	<p>< 폐회 세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LFS와 EU-SILC의 미래(법적인 기준의 계획된 개정 포함) ·Eurostat 대표단과 참가자간 토론 		

※ 발표논문 참조사이트

<http://www.gesis.org/forschung-lehre/veranstaltungen/konferenzen/european-user-conference-2/>